

## 초등학교 남녀 학생의 적응능력 증진을 위한 기초연구

최진아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강사

---

### A Preliminary Study on the Children's Adjustment Ability Progress Program

Choi, Jin-A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sex difference of the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to identify the relation between children's social support and children's adjustment ability. So, It is intended to propose the preliminary data for children's adjustment ability progress program.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12 children from the 5th and 6th grades of elementary school.

The results were as follows: Sex differenc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level were partially found. Also,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 between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Specially, maternal and peer support levels were most highly correlated to boy's adjustment. Father, mother, teacher and peer support levels were highly correlated to girl's adjustment.

In conclusion, children's social support can be recognized as significant variable in predicting the adjustment of children.

---

#### I. 문제의 제기

지식의 급증, 기술력의 향상 등과 같은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은 가족의 기능 및 구조의 변화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내에서의 인간소외와 비인간화 등을 유발하여, 개인의 부적응 문제를 초

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적응의 문제는 사회적 환경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 개인들이 사회적 구성원을 이룬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강한 사회의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대중매체 등을 통해 접하게 되는 비행청소년 및 범죄자의 발생 역시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능력은 개인의 욕구와 환경의 욕구 간에 역학적 안정과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개념으로서의 적응능력이라고 하겠다. 특히 아동은 발달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서 이 시기에서의 적응은, 이후의 청년기 및 성인기의 정서적, 대인간, 직업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Pettit, Dodge, & Brown, 1988), 아동기에서의 적응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겠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에서 제공되는 긍정적 자원 및 도움에 대한 지각으로서 성, 사회계층 등의 변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김명숙, 1995; 이숙, 최진아와 이춘아, 1995; Dubow & Ullman, 1989; Feiring & Lewis, 1991; Furman & Buhrmester, 1985). 성에 관련된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에 따라 남녀간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나, 남녀차이를 보고한 하위요인들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느 하위요인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겠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직업에 따라 아동을 양육하고 훈계하는 유형이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사회계층에 따른 사회적 지지지각의 차이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첫째아에 대한 부모들의 성취기대 및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출생순위에 따른 사회적 지지지각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동은 취약한 시기로서, 사회적 환경내·타인과의 관계에 의해 정서, 사회적 발달이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사회적 관계와 적응능력이 관련이 있으리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사회적 관계와 적응능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더 포괄적인 사회적 관계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와 적응능력간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가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적응능력을 사회적 적응이나, 심리·정서적 적응 등의 한가지 측면으로만 측정함에 따라 일부분의 적응능력과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를 살피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Campbell, Converse, & Rogers, 1976; Gurung, Sarason, Keeker, & Sarason, 1992; Zerkowitz, 1987) 사회적 지지와 전반적인 적응능력간의 관계를 살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더 나아가 남녀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적응능력간의 관계를 비교, 분석함

으로써 남녀아동 각각에게 적합한 적응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기초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성, 사회계층, 출생순위에 따라 사회적 지지지각이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 남녀 아동의 사회적 지지지각과 적응능력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비교함으로써, 적응능력의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1. 연구문제

본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1. 아동의 성, 사회계층, 출생순위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지지지각은 차이가 있는가?
2. 남녀 아동의 사회적 지지지각과 적응능력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아동의 성, 사회계층, 출생순위에 따른 사회적 지지지각

남녀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인간 관계를 인식하리라는 가정하에 여러 연구자들은 아동의 성에 따라 사회적 지지지각이 차이가 있다는 연구들을 보고하였다. 먼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Rosenthal, Gestan과 Shiffman(1986)은 정서적 지지에 있어서만 성차가 발견되었다고 보고하였고, Sullivan(1989)은 사회적 지지의 예언변인으로서 성, 감정이입, 사회적 기술을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성이 개인적 특성보다 사회적 지지의 더 나은 예언 변인임을 보고하였다. Coates(1987)는 사회적 조직망의 구조와 특성이 성차에 따라 다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고, 남녀 고등학생에 따라 조직망의 구조와 정서적 지지의 질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김명숙(1995)은 여아가 남아보다 교사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전체 지지행동도 많이 받았으며, 자존감 지지행위의 빈도도 높았고, 지지제공자의 수도 더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Dubow 등(1989)은 여아가 남아보다 좀 더 넓은 조직망을 갖고, 교사지지도 높게 지각하며, 지지받는 빈도도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Furman 등(1985)은 소년과 소녀보다 친구에 대해 친밀감과 애정 등을 더 높게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강민주(1993)는 아동의 성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하였다.

사회계층에 따른 사회적 지지지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들을 보면, 김명숙(1995)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이 가족, 친구, 선생님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지각했고 지지망도 넓었으며 실제로 지지행위도 많이 받았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보고한 Feiring 등 (1991)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관계망 구성원중에 성인의 수가 많았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출생순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첫째아에 대한 성취기대나 관심이 둘째 이하 순위의 아동에 비해 클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지지지각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 남녀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적응능력간의 관계

적응이란 일반적으로 개체가 가지고 있는 요구와 사회문화라고 하는 환경조건이 가지고 있는 요구가 갈등됨이 없이 역학적 안정과 균형관계를 잡아가면서 요구를 조화적으로 충족시켜가는 상태를 말한다. 이와같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적인 적응과 대인관계내에서의 사회적 적응 등의 전반적인 적응능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정서적 적응으로서 자아존중감을, 사회적 적응으로서는 또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능력을 선정하였으며, 이 시기의 아동에게 있어서 학교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학교 적응이 필수적이므로,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으로서 학업성취를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전반적인 측면으로 아동의 적응능력을 제시하였으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한가지 측면에서의 적응능력과 사회적 지지지각 등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보고되어 왔다.

먼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지각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이 두 변인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보고되어 왔다(Cauce, Felner, Primavera, & Ginter, 1982; Cherry, 1991; Hirsh

& Reischl, 1985; Hoffman, Levy-Shiff, & Ushpiz, 1993).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East와 Lerner (1987)는 또래의 정서적 지지에 대한 인식이 아동의 자기-가치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고하였다. 이혼가정과 정상가정의 8-10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Read(1990)는 아동의 사회적 지지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자존감의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남녀아동을 분류하여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능력과 사회적 지지지각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를 살펴보면, 이숙 등(1995)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체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사회적 지지체계의 세부적인 요인들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남아의 경우, 또래의 정서/정보 및 물질적 지지가 사회적 능력을 가장 많이 설명해 주는 변인이었고, 여아의 경우 부, 모, 교사, 또래에 대한 지지지각이 모두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Christopoulos와 Dell(1989)은 부모의 동료애, 도구적 도움에 대한 지각이 사회적 능력과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Feiring 등(1991)은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이 사회적 능력과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여아의 경우 3, 6세 일때 지지제공자로서의 동성의 가족의 성인의 여부는 9세 때의 사회적 능력을 예측해 준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또한 3, 6, 9세에서 지지제공자로서의 이성 또래의 존재 여부는 여아의 사회적 능력과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학교 적응능력으로서 학업성취와 아동의 사회적 지지지각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보면 Felner 등 (1985)은 학교환경과 취약한 청소년의 적응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교사의 지지에 대한 인지는 이들의 GPA(grade point average)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Guidubaldi와 Cleminshaw (1983)은 이혼가정의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는 친부모와 아동간의 긍정적인 관계는 IQ 및 읽기, 쓰기 등의 학습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Levitt, Guacci와 Levitt(1992)은 아프리카, 유럽계, 라틴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2학년의 경우 부의 사회적 지지와 GPA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8-9학년의 경우 모,

또래의 사회적 지지와 SAT(Stanford Achievement Test)간에 상관인 유의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4-5학년의 경우는 유의한 상관인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인종에 따라 세부적인 효과는 다양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Kojima와 Miyakawa(1993)는 남녀를 구분하여 연구하였는데, 남아의 경우 가족지지 가운데 부, 모의 지지가 학교적응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고, 특히 부모부터 낮은 지지를 받는 소년은 낮은 자존감, 높은 고립감, 낮은 지적성취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아동들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다고 생각되는 인천시 소재의 6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47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부실한 자료를 제외한 412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는 남아가 51.9%였고, 여아가 48.1%로서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사회계층은 부와 모의 교육수준 및 부의 직업을 토대로 상, 중, 하류계층으로 구분하였고 이에 상류계층 21.1%, 중류계층 60%, 하류계층 18.9%였다. 출생순위는 첫째아와 둘째이하의 순위로 구분하였는데, 첫째아가 37.1%였고 둘째이하의 순위인 아동이 62.9%였다.

#### 2.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아동의 사회적 지지 지각을 측정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 척도」(54문항), 자아존중감 검사, 사회적 능력 검사, 학업성취에 대한 질문과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대한 질문 등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지지지각 및 자아존중감 검사는 아동이 응답하였고, 사회적 능력 검사 및 학업성취에 대한 질문은 교사가 응답하였다. 먼저 아동의 사회적 지지지각은 부, 모, 교사, 또래와 같은 지지제공자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요인들을 측정하는 하위요인으로는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지지유형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본 척도의 문항 양호도(Cramer의 V)는 .53-.98였고, 신뢰도는(Cronbach's  $\alpha$  계수) .62-.83이었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송인섭(1996)의 「초

등학교 고학년용 성격진단검사」의 일부인 자아특성 검사 중에서 일반 자아 검사를 사용하였다. 응답의 범주는 긍정적인 문항의 경우 '항상 그렇다(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순으로 배정하였고 부정적인 문항은 반대의 순으로 점수를 배정하였다. 본 검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74였다. 사회적 능력 검사는 이숙 등(1995)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84였다. 학업성취는 교사가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전체 교과목에 대한 1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5등급으로 분류하였고 1-5점에 배치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적응능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 3.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통계 Package를 사용하였고, 평균, 표준편차, 변량 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및 정준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아동의 성, 사회계층, 출생순위에 따른 사회적 지지지각

아동의 성, 사회계층, 출생순위에 따라 사회적 지지지각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동의 성에 대한 결과를 보면, 부, 모, 교사의 지지지각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또래의 지지지각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또래의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는 Furman 등(198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사회계층에 따라 사회적 지지지각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교사를 제외한 부, 모, 또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차이를 살피고자 Duncan test를 실시한 결과 부, 모, 또래에 대한 지지지각 모두에서 상류계층과 중류계층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류 및 중류계층과 하류계층간에 차이가 있어서 하류계층의 아동들이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표 1) 아동의 성, 사회계층, 출생순위에 따른 사회적 지지지각의 변량분석

		부		모		교사		또래	
		평균	Duncan -test	평균	Duncan -test	평균	Duncan -test	평균	Duncan -test
아동의 성	남	56.82	a	53.95	a	42.79	a	41.42	b
	여	57.39	a	54.79	a	44.06	a	46.23	a
	F	0.43		0.98		1.95		31.21***	
사회계층	상	59.22	a	56.28	a	43.77	a	45.49	a
	중	57.44	a	55.00	a	43.95	a	44.36	a
	하	54.19	b	50.80	b	41.53	a	40.49	b
F	7.41***		10.60***		2.33		7.86***		
출생순위	첫째아	58.10	a	55.67	a	43.61	a	44.67	a
	둘째이하	56.44	a	53.52	b	43.19	a	43.19	a
	F	3.40		6.00*		0.20		2.55	

출생순위에 대한 결과를 보면, 모의 지지지각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부, 교사, 또래의 지지지각에서는 첫째아와 둘째이하 순위의 아동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첫째아의 경우 모의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2. 남녀 아동의 사회적 지지지각과 적응능력간의 관계

### 1) 남녀 아동의 사회적 지지지각과 적응능력간의 단순상관관계

사회적 지지지각의 하위요인들과 적응능력 하위요인들간의 단순상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녀 아동 각각에 대해 Pearson의 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남녀 아동의 사회적 지지지각의 하위요인들과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에서, 남아는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아의 경우 교사의 물질적 지지지각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지각의 하위요인과 사회적 능력간의 상관관계에서, 남아의 경우 부의 정보적 지지지각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아의 경우 교사의 물질적 지지지각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지각의 하위요인과 학업성취간의 상관관계에서, 남아의 경우 부의 정보, 물질적

지지지각과 모의 물질적 지지지각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아의 경우 부의 정서적 지지, 모의 정서적 지지, 교사의 정서적 지지, 또래의 정보적 지지지각에서만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의 경우 사회적 지지지각 하위요인은 대체로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능력간에는 높고 유의한 상관이 있으나 학업성취에서는 더 낮은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며, 부 및 모의 물질적 지지는 학업성취와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여아의 경우, 사회적 지지지각 하위요인과 자아존중감간에는 높고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 사회적 능력간에는 교사의 물질적 지지를 제외하고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와의 상관을 보면, 부, 모, 교사의 정서적 지지 및 또래의 정보적 지지에서만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여아에게 있어서 학업성취에 대한 정서적 지지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 2) 남녀 아동의 사회적 지지지각군과 적응능력군간의 정준상관 분석

아동의 사회적 지지지각군과 적응능력군간의 관계의 유무 및 정도를 분석하고, 각 변인들간의 표준화된 값을 토대로 각 변인이 소속변인군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비소속변인군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녀 아동 모두 예언변인군(독립변인군)으로는 사회적 지지지각군을, 기준변인군(종속변인군)으로는 적응

(표 2) 남녀아동의 사회적 지지지각 하위요인과 적응능력 하위요인간의 단순상관 분석

		자아존중감		사회적 능력		학업성취	
		남	여	남	여	남	여
부	정서적 지지지각	.34***	.35***	.23***	.20**	.15*	.19*
	정보적 지지지각	.20**	.27***	.10	.20**	.13	.07
	물질적 지지지각	.21**	.19**	.26***	.28***	.08	.14
모	정서적 지지지각	.50***	.39***	.25***	.23**	.20**	.20**
	정보적 지지지각	.37***	.34***	.15*	.14*	.21**	.09
	물질적 지지지각	.31***	.28***	.23***	.21**	.13	.08
교사	정서적 지지지각	.32***	.35***	.28***	.23***	.25***	.20**
	정보적 지지지각	.24***	.30***	.21**	.25***	.21***	.13
	물질적 지지지각	.26***	.06	.22**	.12	.19**	.03
또래	정서적 지지지각	.33***	.38***	.20**	.24***	.27***	.13
	정보적 지지지각	.18**	.30***	.23***	.24***	.20**	.15*
	물질적 지지지각	.35***	.22**	.17*	.25***	.27***	.11

\*P<.05, \*\*P<.01, \*\*\*P<.001

(표 3) 남녀 아동의 사회적 지지지각군과 적응능력군간의 정준상관 분석

정준 함수	Canonical R	R <sup>2</sup>	자유도	F(Wilk's λ)
<b>남</b>				
제1정준함수	.59	.35	12	7.84***
제2정준함수	.16	.03	6	1.43
제3정준함수	.14	.02	2	1.77
<b>여</b>				
제1정준함수	.52	.27	12	5.33***
제2정준함수	.13	.01	6	.47
제3정준함수	.03	.00	2	.10

\*\*\*P<.001

력군을 선정하였다(표 3).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남녀 아동 모두에 3개의 정준함수가 도출되었고 제1정준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제1정준함수에서 남아의 준근(R<sup>2</sup>)은 .35로 나타났고, 여아의 정준근은 .27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지각군과 적응능력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음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설명변량률(redundancy) 산출하였다(표 4).

(표 4)와 같이 남아의 경우, 제1정준함수에서 기준변인군 변량의 17.3%는 예언변인군의 정준변량 의해 설명되고 전체적인 정준함수에서는 총 18.9%가 설명되어 진다. 여아의 경우 역시 제1정준함수에서 기준변인군 변량의 13.9%는 예언변인군의 준변량에 의해 설명되고, 전체적인 정준함수에서

(표 4) 남녀 아동의 사회적 지지지각군과 적응능력군간의 설명변량률

	설명변량률	설명변량률의 비율
<b>남</b>		
기준변인외		
제1정준함수	.173	.96
제2정준함수	.004	.02
제3정준함수	.004	.02
합 계	.181	1.00
<b>여</b>		
기준변인외		
제1정준함수	.139	.99
제2정준함수	.002	.01
제3정준함수	.000	.00
합 계	.141	1.00

는 총 14.1%가 설명되어 진다. 이와같은 결과는 남아와 여아 모두에서 적응능력군에 대한 설명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지각군이 유의하다는 사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남녀 아동들의 각 변인군의 정준적재치와 정준교차적재치를 통하여, 각 하위 변인들의 소속변인군과 비소속변인군에 대한 상대적인 기여도를 산출하였다(표 5).

(표 5) 남녀 아동의 사회적 지지지각군과 적응능력군의 소속변인군과 비소속변인군간의 상대적인 기여도

	남		여	
	제1정준함수 L1	L2	제1정준함수 L1	L2
<b>기준변인군</b>				
자아존중감	.92	.54	.87	.45
사회적 능력	.51	.30	.66	.34
학업성취	.55	.33	.37	.19
<b>예언변인군</b>				
부 지지지각	.54	.32	.69	.36
모 지지지각	.85	.50	.74	.39
교사 지지지각	.62	.36	.70	.36
또래 지지지각	.77	.45	.72	.38

L1 : 소속변인군의 정준함수에 대한 상대적인 기여도(정준적재치)

L2 : 비소속변인군의 정준함수에 대한 상대적인 기여도(정준교차적재치)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남녀 아동 모두에서 기준변인군의 정준적재치는 각 변인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고, 예언변인군에 있어서도 각 변인 모두가 높은 적재치를 보였다. 이는 각 변인군의 변인들이 소속변인군을 잘 설명해 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비소속변인군의 정준변량과 소속변인군의 정준변량간의 상관관계인 정준교차적재치를 보면, 남아의 경우 적응능력에 대하여 모(.50), 또래(.45), 교사(.36), 부(.32)의 순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아의 경우 모(.39), 또래(.38), 교사(.36) 및 부(.36)의 순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의 경우, 모와 또래 지지지각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큰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남아의 적응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모와 또래의 지지지각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5-6학년 남아의 경우 여전히 모의 영향력이 크고, 또래의 영향력도 점차로 중시되고 있는 시기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이는 남아에게 있어서 또래 지지지각이 사회적 능력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이라고 보고한 이숙 등(1995) 및 Kojima 등(199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여아의 경우 부, 모, 교사, 또래 모두의 상대적인 기여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서 여아의 적응능력을 증진시키는데 모든 제공자의 지지지각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도 이숙 등(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으로써, 여아의 적응능력에 있어서는 지지제공자 모두에 대한 지지지각이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지지해 주었다.

## 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남, 여 아동 412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 사회계층, 출생순위에 따른 사회적 지지지각의 차이를 규명하고, 남녀 아동의 사회적 지지지각과 적응능력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비교함으로써, 남녀 아동의 적응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 사회계층, 출생순위에 따라 사회적 지지지각이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 본 결과, 또래의 지지지각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여아들이 또래로부터 친밀감과 애정을 더 지각하며 전반적으로 지지에 대해 높게 지각한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사회계층에 따른 지지지각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교사를 제외한 부, 모, 또래의 지지지각에서 상, 중류계층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상 및 중류계층과 하류계층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중류 이상의 사회계층에 속한 아동의 경우 사회적 지지지각은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하류계층에 속하는 아동은 유의하게 낮은 사회적 지지지각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이들 하류계층 아

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또한 출생순위에 대한 결과에서는 가정내에서 모의 지지에 대한 지지에서만 첫째아와 둘째이하 순위의 아동들간에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둘째이하 순위의 아동에 대한 모의 태도가 달라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둘째, 남녀 아동의 사회적 지지지각과 적응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단순상관관계에 의하면, 남아의 사회적 지지지각 하위요인은 대체로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능력간에는 높고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 학업성취에서는 더 낮은 상관이 있음을 볼 수 있었고, 특히 부, 모의 물질적 지지와 학업성취간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 줌으로써, 물질적 지지보다 정서, 정보적 지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또한 여아의 사회적 지지지각 하위요인과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능력간에는 높고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 사회적 능력과 교사의 물질적 지지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지지하위요인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는 대부분 유의하지 않았으나 부, 모, 교사의 정서적 지지 및 또래의 정보적 지지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여아의 학업성취에 있어서 심리적인 격려나 관심, 애정 등의 정서적 지지가 중요한 설명변인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정준상관관계에 의하면, 남녀 아동 모두에서 사회적 지지지각군과 적응능력군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설명변량률도 높게 나타나 사회적 지지지각군이 적응능력군을 설명하는 유의한 예측변인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남아의 경우 적응능력군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모와 또래의 지지지각이 높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아의 경우 부, 모, 교사, 또래의 모든 지지제공자의 지지지각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의 적응능력에 대한 모와 또래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보여 줌으로써, 모의 중요성이 영아기 이래로 계속 지속되고 있으며, 또래의 영향력도 증가되어 간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여아에게 있어서는 전반적인 지지제공자들이 모두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와 여아의 적응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서로 다른 조절전략을 사용해야 함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남녀 아동 각각에게 적절한 적응능력 증진 프로

그램을 세우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이 직접 대면하는 미시체계 내의 사회적 관계에만 국한되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미시환경 뿐만 아니라, 모의 사회적 지지나 모와 교사와의 관계, 또래들간의 관계, 지역사회 등의 영향을 고려한 중간체계 및 외체계가 아동의 적응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이후의 청소년기의 사회적 지지와 적응능력간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생애 발달적인 측면의 변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 참 고 문 헌

- 1) 강민주(1993).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능력 지각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명숙(1995).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송인섭(1996). 초등학교 고학년용 성격진단검사. 서울: 한국심리작성연구소
- 4) 이숙, 최진아, 이춘아(1995). 사회적 지지체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 4, 55-69.
- 5) Campbell, A., Converse, P.E., & Rogers, W.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6) Cauce, A.M., Felner, R.D., Primavera, J., & Ginter, M.A.(1982). Social support in high risk adolescents: Structural components and adaptive impac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0, 417-428.
- 7) Cherry, D.B.(1991). Relations between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in physically disabled and able-bodied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Loyola University of Chicago.
- 8) Christopoulos, C., & Dell, S.B.(1989). Dimension of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as predic-



- tions of social competence.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Kansas City.
- 9) Coates, D.L.(1987). Gender differences in structure and support characteristics of black adolescents' social networks. *Sex Roles* 17, 11/12, 667-685.
  - 10) Dubow, E.F., & Ullman, D.G.(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1, 52-64.
  - 11) East, P.L., & Lerner, R.M.(1987). A model of children's adjustment: Child-peer group fit, peer relations, and peer social support.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Baltimore.
  - 12) Feiring, C., & Lewis, M.(1991). The transition from middle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Sex differences in the social network and perceived self-competence. *Sex Roles*, 24, 7/8, 489-506.
  - 13) Felner, R.D., Aber, M.S., Primavera, J., & Cauce, A.M.(1985).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in high-risk adolescents: An examination of environmental mediator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3, 4, 365-379.
  - 14) Furman, W., & Buhrmester, D.(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6, 1016-1024.
  - 15) Guidubaldi, J., & Cleminshaw, H.(1983). Impact of family support systems on children's academic social functioning after parental divorc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aheim.
  - 16) Gurung, R.A.R., Sarason, B.R., Keeker, K.D., & Sarason, I.G.(1992). Family environments, specific relationships, and general perceptions of adjustmen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 17) Hirsch, B.J., & Reischl, T.M.(1985). Social networks an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A comparison of adolescent children of depressed, arthritic or normal par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 272-281.
  - 18) Hoffman, M.L., Levy-Shiff, R., & Ushpiz, V. (1993). Moderating effects of adolescent social orient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2, 23-31.
  - 19) Kojima, H., & Miyakawa, J.(1993).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in Japanese elementary school children.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New Orleans.
  - 20) Levitt, M.J., Guacci, N., & Levitt, J.L.(1992). Stressful life events, social support, and achievement: A study of three grade levels in multicultural environment.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attle.
  - 21) Pettit, G.S., Dodge, K.A., & Brown, M.M. (1988). Early family experience, social problem 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9, 107-120.
  - 22) Read, N.O.(1990). Marital status and social support in relation to children's self-estee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
  - 23) Rosenthal, K.R., Gesten, E.L., Shiffman, S. (1986). Gender and sex rol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Sex Roles* 14, 9/10, 481-498.
  - 24) Sullivan, L.A.(1989). Sex, empathy, and social skills as predictors of social support. ED 310 328.
  - 25) Zerkowitz, P.(1987). Social support and aggressive behavior in young children. *Family Relations*, 36, 129-134.